

# 위서에 가까운 《화랑세기》

위서의 사회사 — 8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화랑세기》를 둘러싼 위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책은 '진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위서에 가깝다. 김대문이 지은 것으로만 알려진 이 책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것은 신라 화랑들의 성문란과 도덕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역사학계의 중진급 학자들인 노태돈 교수와 이종욱 교수가 맹장이 돼 필전을 벌이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고대 사서(史書) 가운데 진위논쟁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행될 책이 《화랑세기(花郎世紀)》다. 제목에 '위서에 가까운'이라고 '어정쩡한' 표현을 단 것은 100%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어디서 '진본'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위서'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할 말을 잃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논쟁은 계속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위서 쪽에 기울지 않을까 싶다.

《화랑세기》는 신라시대 김대문이 쓴 화랑의 전기로 알려져 있다. 진골귀족 출신으로 704년(성덕왕 3년) 한산주 도독으로 있던 김대문이 《고승전》 《한산기(漢山記)》 《계림잡전(鷄林雜傳)》과 함께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책들은 지금은 하나도 전하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김대문의 세기'라 했고, 최지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는 '선사(仙史)라 했으며,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은 '세기(世紀)라고 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할 때, 신라 화랑들의 전기라 할 수 있는 이 책이 근래에 진위논쟁에 휩쓸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도 학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중진 학자인 노태돈 교수와 이종욱 교수가 양진영의 맹장이 돼 필전을 벌이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 김대문이 쓴 화랑 풍월주의 전기

《화랑세기》는 540~681년 동안 1세부터, 32세까지 32명의 화랑 풍월주(風月主)의 전기다. 풍월주란 화랑의 최고 우두머리를 일컫는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랑의 세보(世譜), 즉 풍월주의 출생에서 성격·모습·혼인 등에 관한 기록으로 남자 238명, 여자 180명이 등장한다. ▲낭정(郎政: 화랑의 행정)의 대자(큰 줄거리), 즉 화랑도 조직과 활

동의 대강을 싣고 ▲파맥(派脈)의 옹고 그림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서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신공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지냈다. 이는 중국 연(燕) 나라의 동산(桐山)이나 노나라의 태산(泰山)과 같은 것이다. 옛날 연나라 부인들은 선도(仙徒)를 좋아하여 미인들을 많이 양성하였으며, 그 이름을 '국화'(國花)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습이 동쪽으로 전해져 우리나라에도 '원화'(源花)가 생겼으며, 그 후 지소태후(진홍왕의 어머니)가 이를 폐지하고 화랑을 두어 나라 사람으로 하여 받들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법흥대왕이 위화랑(魏花郎)을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화랑이라 하였다. 화랑이라는 이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옛날에 선도들은 신을 받드는 일을 위주로 하여 나라의 사대부들도 차례로 이를 행하였다. 그 뒤 선도들은 도의로서 서로 권면하여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를 말미암아 생겼으니, 이로서 화랑이 생겨난 것이다."

최근 《화랑세기》가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은 서경대 사학과 이종욱 교수가 한문원문에 한글 번역본을 붙여 《화랑세기—신라인의 신라 이야기》(소나무)를 출간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진위논쟁과 함께 신라 화랑들의 문란한 성생활 내용 때문에 학문외적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신라 법흥왕은 비랑공이란 신하를 총애했는데 그 비랑공은 왕비를 사모했다. 왕은 왕비와 신하의 만남을 막지 않았다. 신하와 왕비, 두 남녀는 왕비의 뒷간에서 정사를 즐겼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신라의 대표적 화랑인 사다함이었다."

## 《화랑세기》의 출생과 전래에 얽힌 비화

이렇게 신라 화랑들의 성문란과 도덕적 타락상을 기록한 책이 과연 진본이나 후세 위작이냐는 논란은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번역자 이교수는 "지난 5년 동안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책의 위작 가능성을 검토했다. 당연한 일 아닌가. 그 결과 위작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89년 발췌본이 공개된 이래 한국 사학계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주도해왔다. 연구자료로 《화랑세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때문에 망설임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화랑세기》 자체의 내용이 옳게 파

악되기 어려웠고, 본격 사료로 이용해 신라사를 해명할 수도 없었다. 위작이 아니라면 《화랑세기》는 신라의 실상과 담론 체계를 충실하게 전하는 무엇보다 귀중한 자료이다.”(《뉴스 플러스》 제192호)

김대문이 지은 것으로만 알려진 이 책이 그야말로 홀연히 나타나 관심사가 된 것은 1989년 2월 발췌본이 재야사학자 이태길씨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다.

‘홀연히’ 나타난 문제의 필사본은 1934~1945년 사이 일본 궁내성의 왕실도서관에 근무하던 박창화가 이곳에 비치된 《화랑세기》를 베껴 적은 것이라 한다.

필사본은 두 종류가 전한다. 1989년 부산에서 발견된 32쪽짜리 발췌 필사본과 1995년 공개된 162쪽짜리 원 필사본이다. 먼저 발견된 필사본은 나중 것의 내용을 추려 적은 것이다.

위서라고 주장해온 노대돈 교수는 1989년 7월 부산에서 소장자 김정자씨를 만나 길이 34.2cm, 폭 23.2cm, 새로 제본한 표지에 씌어진 ‘현물’을 봤다고 한다. 책의 원래 지질은 조선종이인데, 종이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노교수는 자신이 살펴본 필사본은 “일본 궁내성 일호패지(一號罫紙)와 같은 양식으로, 종이의 우단 아래쪽에, ‘궁내성’(宮內省)이라는 글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면도칼과 같은 예리한 것으로 잘려져 나간 상태”였다고 썼다(《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이어서 “1989년에 알려진 필사본 화랑세기의 그것과 같은 필체였다”고 부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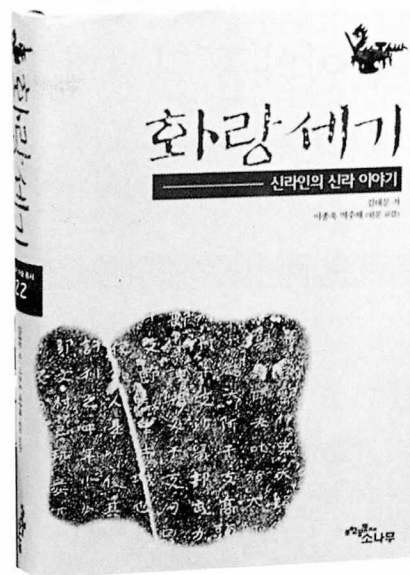
풀어보면, 일제시대 일본 궁내성에서 일하던 박창화라는 사람이 궁내성 패지에 그곳에 보관된 《화랑세기》를 필사했는데, 162쪽짜리와 이를 다시 축압한 32쪽짜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같은 사람이 필사본을 둘씩이나 만들었는지, ‘궁내성’을 표시한 부분이 잘려 나간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이 책의 구성과 서술에는 신라사와 화랑도에 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이 책이 값싼 흥미 위주의 소설류에 그치지 않고, 사학도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것도 이런 면 때문이다.”**

#### 《삼국유사》의 오류 그대로 담겨

노교수는 자신이 직접 필사본 소장자를 만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연구한 결과 이 책이 위서라고 주장한다. 노교수의 위작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는 1989년 공개된 초록본이 있고, 대략 그것의 5배 분량의 모본(母本)이 따로 존재하는 데도 초록본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이 위작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용어선택에서 ‘궁주’(宮主)와 같이 고려 시대에 쓰였던 용어들이 나타나고, ‘전주’(殿主), ‘전군’(殿君) 등은 문헌자료나 금석문 등에서 일체 보이지 않으며,



최근 역사학계에서 위서 논쟁의 핵심에 선 책이 필사본 《화랑세기》다. 위서 여부를 둘러싸고 고대사학자들 사이에 팽팽한 필전이 벌어지고 있다.

‘모계’(母系)와 같이 근대에 사용된 용어가 보인다. ▲김대문의 조부라는 이의 이름조차 예원과 체원으로 왔다갔다 하는 혼란은 위작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현상이다. ▲위작된 시기가 1930년대 이후에서 1945년 사이였다고 여겨진다. 1930년대에는 화랑도와 향가에 대한 연구가 성행한 시기였다. ▲이 책의 저자는 풍부한 상상력과 치밀한 구성력 및 문학적인 자질을 지녔을 뿐 아니라 화랑도와 신라사에 관한 사료를 폭넓게 섭렵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일본서기》, 《중국정사》(동이전), 《자치통감》뿐만 아니라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지류(地誌類)와 《조선금석총람》 등도 봤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료에 대해 치밀하게 파악했고, 또 때로는 이를 능란하게 구사한 면도 보여준다. ▲그는 향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했다. 자연히 이 책의 구성과 서술에는 신라사와 화랑도에 관한 수준 높은 이해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이 책이 값싼 흥미 위주의 소설류에 그치지 않고, 사학도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것도 이런 면 때문이다(앞의 글).

노교수는 특히 이 책이 《삼국유사》의 오류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6대 화랑(풍월주)이라는 ‘세종’에 대해 ‘그 어머니는 지소(只召) 태후이며, 그녀의 초명(初名)이 식도부인으로서 법흥왕의 딸이다’고 한 점이다. 이 기사는 《삼국유사》 왕력(王曆)의 그것과 같다. 그런데 《삼국유사》 왕력의 이 부분 기사는 《삼국유사》의 다른 기사나 《삼국사기》와 대비해보면 착오가 분명하다. 또한 이 기사는 왕력의 여타 기사의 형식과 대비할 때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결락(缺落)된 것이다. 《삼국유사》를 간행할 때 몇 자를 빠뜨리는 착오를 범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잘못이 《화랑세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사본 《화랑세기》가 13세기에 쓰여진 《삼국유사》를 참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중앙일보》, 1999년 6월 17일). ■